

## 唯物論과 質的 生活 (二)

文君의 反駁에 答함

金永義

文君의 人生觀은 이러하다. 『저 廣大浩然한 宇宙의 一部分인 同時에 한 組織된 物質이다. 宇宙란 自然이며 物質이다. 最初의 所與는 物質이다. 잇다는 것은 思惟 中에 잇다고 말하지는 아니 한다. 物質에서 獨立한 精神의 先世界的 存在라는 것은 업다. 精神도 物質이다. 物質은 우리의 感覺에 反對된다. 物質이란 空間 及 時間에 存在하여 우리의 感覺에 作用하고 쪼는 그 中에 反映하는 客觀的 實在이다.』 쪼 다시 『先輩』의 말을 引用하면서 『우리의 意識과 思惟라는 것은 如何히 超感覺인 것으로 보인다 하드래도 한 物質的 肉體的 器官인 頭腦의 所産이다. 精神이 物質의 最高 所産이라 斷言하였다. 文君 宇宙가 自然 쑤이고 物質 쑤인지 엇지 推測하는가? 最初의 所與는 物質인지 엇지 理由 업시 斷言하는가? 한 時計는 物質의 組織 쑤이요 組織한 齒輪들이 스스로 發達하여서 時間 測定의 作用을 하는가? 銅鍼들이 最高로 發達하여서 齒輪들이 되고 그 齒輪들이 스스로 組織되고 最高로 發達되어서 時間 測定의 作用까지 現出되었나? 그러치 안흐면 時計를 發明한 사람의 頭腦와 齒輪들이 合力하여 한 時計가 組織되지 안헛는가? 勿論 時計 自身이 一定한法則으로 機械作用을 한다. 거기에는 一定한 自然法則의 作用이 있다. 이 作用이야말로 齒輪들의 物體 업시 作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法則은 時計 自體에서 發生된 것이 아니라 이 法則이 作用하개 사람은 齒輪들을 組織하였다. 宇宙에는 自然法則이 있다. 그 法則은 神도 干涉하지 안는다. 그러나 法則 스스로는 作用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우리의 見地에서는 時計의 本源은 齒輪이라 못하겠다. 사람의 頭腦 外에 獨立하여 客觀的으로 發明되었다고 斷言할 수 업다. 時間 測定 作用은 다만 齒輪들이 高度로 發達된 쑤이라고 主張할 수는 업다.

우리가 主張하는 바는 宇宙는 精神과 物質의 두 作用이 實在的 本體로서 支配됨이다. 사람은 肉體가 잇고 나서 高度로 발달된 肉體가 思想이 됴이 아니라 人格에는 精神, 肉體의 두 作用이 잇다고 한다. 宇宙는 物質이 本源이

다가 思惟를 高度 作品으로 産出하는 것이 아니라 最上 實在 卽 神의 作用을 物質과 思惟는 表現한다. 사람의 意識은 한 肉體的 性質이 아니라 肉體와 共同히 그 人格의 作用이 된다. 사람의 精神的 思想은 物質의 氣體的 所産이 아니라 精神은 肉體와 共同히 그 人格을 表現한다.

現在 生活에 잇서 우리는 『精神이 物質』 아닌 것을 目睹한다. 果然치 안흔가? 精神이 果然 物質와[과] 最高 産物이면 物質 作用의 正反對의 作用이 었지 나는가? 사람이 物質의 最高 作品이면 物質 性質과 正反對되는 性質이 었지 所産되는가?

모든 倫理的 生活, 藝術的 生活, 藝術生活이 物質的 慾望에서 根本되지 안음을 었지하라. 物質的 慾望의 最高 産物에 倫理와 藝術이라 하면 그 正反對의 性質은 어디서 現出되었는가? 社會를 爲하여 自己를 形成하는 決定, 民衆을 爲하여 온갖 苦勞를 甘受하는 思想, 倫理的 主義를 爲하여 肉體의 苦痛까지 無視하는 心的 態度조차 經濟 慾望, 物質 慾望의 最高 産物인가? 이 가튼 正反對의 結果가 잇슴은 物質 慾望 以上 人的 自由意志가 잇슴이 아닌가? 이 人的 自由意志가 잇슴으로 가튼 環境 가튼 形便에서도 個人을 싸라 相異한 結論과 心的 態度를 가짐이 아닌가? 萬若 思想이 物質的 産物이면 었지 하여서 論爭이라는 것이 생기나? 現 朝鮮의 貧乏과 또 生活難은 었지하여서 正反對되는 救援的 斷言들을 나리는가? 勿論 우리는 絶對 自由主義를 主張하지 앓는다. 文君이 말하는 바와 가티 『前에 잇는 所與된 傳承된 狀態下에 잇서서다.』 果然하다. 그러나 亦是 創作的 自由意志가 잇서야 歷史의 發達이라는 것이 잇을 것이다. 人的 創作的 事實이 었는 바에야 『選擇』이라는 것이 었지 생기랴!

宇宙의 物質的 作用과 精神作用을 主動식히는 實在를 基督教은 神이라 한다. 그 神이 두 作用의 實在인 듯이 사람의 人格은 物質과 精神의 두 作用의 主動的 實在이다. 싸라서 사람은 自己의 自由로 -- (絶對的이 아니라 相對的한 環境 안에서)의 創作的 自由로) -- 歷史를 作出한다고 主張한다. 사람은 決코 物質 生活을 解脫할 것이 아니라 完滿한 物質主義마저 삶의 한 部分이라고 基督教은 主張한다. 사람은 物質의 作品이 아니라 心的 作用을 宇宙에 하는 神의 子息이라고 論한다. 한 社會의 어느 個人이나 단지 無産者뿐이 아니라 有産者든지 다 서로 兄弟라고 서로 서로 兄弟된 義務와 責任이 잇다고 基督教은 結論하는 바이다. 筆者는 反駁의 글을 쓸만한 文君을 다만 物質의 組織으로 볼 수는 었다. 自己가 보는 主義와 心的 態度를 가진 自由意志가 잇는 人格으로 본다. 흙덩이를 百萬年을 構成하여도 文君의 經濟□은 었을 듯 십지안타.

歷史觀으로 文君은 말하기를 --『精神이 根本이나? 그러치 아니하면 物質이 根本이나? 彼等은 精神을 主張하지만은 우리는 物質이 根源이라고 主張한다. 人間의 精神에 對하여 物質은 決定的 役制을 行한다. 唯物史觀에 依하면 歷史에 잇서서 最後의 決定要素는 實在에 對한 人生의 生産과 再生産이다. 그 以上을 우리는 主張하지 아니한다.』-- 고 하얏다. 그야말로 唯物論에 依하면 決定的 役割은 物質이갠다. 다만 歷史的 事實이 唯物史觀的 態度를 是認하는가? 이는 決코 經濟 慾望과 物質的 生活이 歷史 --一大 動機였든 것을 물음이 아니라 참으로 모든 人的 歷史 事實이 物質로서 決定되는 是非를 물음이다. 希臘의 文藝와 學術도 物的 產物이고 羅馬의 政治的 天才도 物的 地理的 산물이엇든가? 히브리의 宗教도 物質 生活의 最高 產物인가? 文藝復興, 宗教改革, 進化論의 學說 모든 것이 다 生産과 再生産 制度뿐에 紗라 出되엇다는 말인가? 萬若 質로 經濟的 生産制度뿐이 그다지 큰 決定的 基礎라 하면 經濟生活 以外 모든 人的 活動은 어딴서 起因하였는가? 經濟生活이 그다지 根本的인데 理想을 爲하여 經濟的 苦痛을 맞는 行動이 어딴서 나나?